

월요광장

영화 ‘동주’, 염치없는 세상에서 글쓰기



송 광 롱
시인·문학평론가

학동에는 학이 없다. 출판사 창문에 햇살이 드는 오후, 광주천도 반짝인다. 흐르는 그 물은 본래의 물이 아니다. 걸러낸 오수가 다시 흐를 뿐. 그래도 물풀은 자라고 물고기들은 헤엄친다. 왜가리도 정신 바짝 차리고 한참을 버티고 있다. 벌은 따사롭고 벼들강아지들은 하늘거린다. 또 봄이 온 것이다.

말린 원고를 뒤적거려 본다. 눈에 들어 오지 않는다. 집중하려고 커튼을 친다. 빛이 차단된 공간에서는 햇살, 나무, 풀, 벌, 달, 하늘, 물과 같은 말들이 그리워진다. 말들이 먼저처럼 부유한다. 더듬이는 금세 먼지의 무게를 못 이기고 딱딱하게 굳어진다. 그러다가 바깥 한 줄기처럼 아주 소박하고 귀한 대목에 불현듯 눈을 비비고 다시 보게 된다.

“내 손아귀를 바라본다/ 한 기 분의 쌀을 풀 만끽이다/ 부끄러움에 얼굴을 감쌀 만끽이다/ 심장을 받쳐 들 만끽이다/ 가

만히 함장하여 본다/ 오 평생 비어 있기를...”

성명진의 시 ‘손’이다. ‘염소’라는 시의 구절은 이렇다.

“살면서 염소 한 마리를 이끌고 왔다/ 염소는 자주 버티었다/ 내가 염소를 따라 걷기도 했다(종략)/ 자주 뿔을 세우지만/ 꼬리를 떨곤 하는 염소 한 마리랑/ 나는 지금도 걷고 있다/ 길 양쪽을 나눠 걸을 때/ 둘은 햇살을 향해 나란하다.”

염치가 있다. 가끔 ‘문청’들과 시간을 나눌 때가 있다. 글을 쓰고 싶다는 아이들에게 왜 글을 쓰려 하느냐고 묻는다. 대개 거들먹거리는 치들 중에 글 잘 쓰는 자 없다는 말도 꼭 해 준다. 글을 쓴다는 것은 무엇일까.

요즘 ‘운동주’가 화제다. 5억을 들여 만든 저예산 영화 ‘동주’가 관객 100만을 넘어섰다. 운동주의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는 베스트셀러 상위에 올랐다. 운동주는 소재로 한 연극, 뮤지컬, 콘서트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한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라/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운동주의 ‘서시’는 학창 시절 내가 속한 문학회의 ‘회가’(會歌)이기도 했다. 최루탄으로 분침을 하고 돌아와 주막집 뒷방에서 눈물 콧물 범벅으로 부르던 노래.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

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가야겠다”고 다짐도 하기 전에 여기저기에서 울음이 먼저 터져 나오던 노래.

‘서시’는 전사가 부를 만한 노래는 아니었다. 4박자가 아닌 6박자의 느려 빠진 가락으로 행진을 할 군대는 이 세상에 없을 테니까. 안팎에선 주막집이 떠나갈 듯 투쟁의 함성이 솟구치는데, 벌이 보일 리 만무한 뒷방 구석에 코 박고 앉아 훌쩍이고 있으니, ‘모든 죽어가는 것들이 ‘나’를 사랑해 달라고 심약한 가슴에 와 안길 리도 만무했다.

“6첩방은 남의 나라/ (종략)/ 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운동주, ‘쉽게 씌어진 시’)

영화 속 운동주는 자신보다 먼저 시인이 된 몽유에게 열등감을 느끼고, 조선어로 시를 쓰지 못하는 시대, 창씨개명을 해야 하는 시대, 행동으로 나서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 부끄러워한다. 이 영화가 흥행(?)을 한 것이라면, 영웅이 아닌 실이 있는, 살아가는, 살아내는 한 개체이자 주체인 운동주를 그러려 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니 젊은 날 심약한 ‘문청’들의 밤이 마냥 ‘회의적’이었다고는 말하지 못하겠다. 마치 영화 속에서, 싸우는 몽유와 회의하는 동주가 그랬듯이 말이다. 문제는 그 회의의 결말이다.

“이런 세상에 태어나서 시를 쓰기를 바라고, 시인이 되기를 원하고,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기만 한 게 부끄러워서 서명을 못하겠다.”

일본 형사 앞에서 진술서에 서명을 거부했던 운동주는, 광복을 6개월 남겨둔 채 스물일곱의 나이로 눈을 감았다.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운동주, ‘쉽게 씌어진 시’).

‘최후의 나’란 죽음과 직면할 때의 ‘나’다. 그것은 순간순간 ‘최초의 악수’를 할 줄 아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나’일 것이다. 그것은 ‘염소 한 마리랑’, ‘길 양쪽을 나눠 걸을 때/ 둘은 햇살을 향해 나란하다’라는 구절에서 보듯이 타자와 대화할 줄 아는 자의 몫일 것이다.

대화는 내 것을 달고 남의 것을 채우는 일이다. 외롭고 막막한 날, 천변 바위틈에 엉덩이를 비집고 앉아 물끄러미 흘러가는 물을 바라본다. 걸리진 물이라서 다행이다, 그나마 과거를 돌아볼 수 있으니. 바람이 불 때 물살이 이는 것도 행복이다, 아직 최후는 아니니, 살아있으니. 물이 햇살을 안는 것을 본다. 햇살이 물고기들을 어루만지는 것을 본다. 내가 눈을 뜨고, 눈을 감는 순간들을. 바람이 이 모든 것을 움직여 주니 좋다. 부끄럽다.

社說

심상치 않은 호남에서의 국민의당 바람

선택 4·13 D-9

4·13 총선의 호남 지역 선거전이 후끈 달아 올랐다. 아권 뒷발 사수 총력전을 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더민주)과, 새로운 호남 대변자를 자임하는 국민의당은 지난 주말 당 지도부가 출동해 선거운동을 벌였다.

광주·전남에서 대체로 국민의당이 뒤지는 것으로 나타난 더민주는 초반 상이다. 광주·전남·북 전체 28석 가운데 당선을 최소 10석 이상으로 예상하면서도 안방을 가져 내 주는 것 아니냐는 자체 분석으로 초조한 기색이다. 이를 의식한 듯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지난주 전북과 광주를 누렸다.

더민주는 지역에서 점차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자체 판단을 하고 있지만 문재인 전 대표와 친노 패권 정치의 염증이 완전히 가시지 않아 예전의 지역 민심을 크게 못 미친다는 게 객관적인 시각이다. 어제 광주 복갑 정준호 후보가 “문 전 대표는 대통령 후보를 포

기하라”고 촉구한 것이나, 김종인 대표가 문 전 대표의 호남 방문을 회의적으로 보는 발언을 한 것은 저변에 친노에 대한 응어리가 여전한함을 반증한다.

반면 국민의당은 여론조사 결과 지지도가 높어져 자신감으로 고무돼 있다. 광주에서는 전승을 내다보고 있을 정도다. 전남·북에서도 더민주를 앞서는 선거구가 늘어남 것으로 예상하는 국민의당은 “호남 28석에서 20석 이상은 물론이고 전 지역 석권도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호남에서 국민의당의 심상치 않은 기세는 우선 새로운 대안 정당으로 확고한 기틀을 굳힌 데서 비롯된다는 풀이이다. 비례대표에서도 성과를 거두고 입당제를 구성하고 제3정당으로서 새로운 정치를 펼치라는 기대도 상승세의 한 요인으로 꼽는다.

누가 됐든 호남 지지를 얻으려면 남은 기간 얼마나 진지하게 임하느냐에 달려 있다. 실현 가능한 지역 발전 비전과 정치 수준 향상을 위한 변화된 모습을 보여 주어야만 선택받을 수 있을 것이다.

김부겸의 ‘지역구도 타파’ 희망이 보인다

4·13 총선의 호남 패권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치열하게 맞붙고 있다. 하지만 당초 팽팽했던 양당의 경쟁은 선거를 9일 남겨둔 현재, 한쪽으로 크게 기울어 다소 맥빠진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호남에서만큼은 국민의당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이 된다는 일당독점의 폐해에 대한 반사작용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한 지역 민심의 변화는 몇 년 전부터 이미 감지됐 다. 새누리당의 이점현 의원이 2년 전 보궐선거에서 18년 일당 독식을 낸 것이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서는 이 의원 의 생환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대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김부겸 후보가 지역구도 타파에 성공할 수 있을지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일단 최근 대구의 민심이 크게 출렁거리고 있는 것은 여론조사 결과만 봐도 확실히 과거 총선 때와는 다르다고

한다. 대구는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어 낸 기반 지역이지만 새누리당의 막장 공천 파동에 따른 민심 이탈로 지지율 이상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찍부터 대구에 머물러 온 김부겸 후보는 새누리당의 대권 잡퐁이라는 김문수 후보를 상대로 줄곧 대구 지역 각계 인사 1000여 명이 성명서를 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한 지역 민심의 변화는 몇 년 전부터 이미 감지됐 다. 새누리당의 이점현 의원이 2년 전 보궐선거에서 18년 일당 독식을 낸 것이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서는 이 의원 의 생환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대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김부겸 후보가 지역구도 타파에 성공할 수 있을지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일단 최근 대구의 민심이 크게 출렁거리고 있는 것은 여론조사 결과만 봐도 확실히 과거 총선 때와는 다르다고

법조칼럼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홍 성 기
광주지검 검사

몇 해 전 다른 정에서 근무할 때의 일이다. 토요일 오후 서울에 있는 가족을 볼 생각에 들뜬 마음으로 영동고속도로를 따라 운전하고 있었다. 그런데 앞서가던 차의 브레이크등이 몇 번 들어오는가 싶더니 1차로 한복판에서 급정거를 하였다. 필자 또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뒤따라 오던 차량에 들이받히면서 결국 3중 추돌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다.

나중에 앞차가 급정거한 이유를 들어 보니 짐 횡단했다. 연인이 동해안으로 여

행을 갔다가 돌아오던 중 사소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급정거를 하였다의 것이다.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아직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아찔하다.

지난 2015년 8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도입된 난폭운전 처벌 규정이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자동차의 운전자가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횡단·유턴·후진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난폭운전 행위를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유에 포함하고, 난폭운전 행위를 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교통안전 교육을 받게 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난폭운전의 유형으로는 차량 사이로 잇따라 급차로 변경을 하면서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행위, 앞차가 늦게 간다고 차량 뒤에 바짝 붙어서 경음기를 지속적으로 누르는 행위, 고속도로 등에서 고의로 지속적으로 역주행을 하는 행위, 과속을 하면서 신호 위반을 하는 행위, 중앙선 침범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앞지르기를 하는 행위 등이 있다.

난폭운전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협을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야기하는 행위라면, 보복운전은 운전 과정에서 특정인을 상대로 폭행, 상해, 협박, 손괴를 가하는 행위이다.

예를 들어 천천히 간다는 이유로 앞서가던 차량을 추월해 급감속·급제동하여 위협하거나 고의로 충돌하는 행위, 자신을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급차로 변경을 해 다른 차량을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밀어붙이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난폭운전이 도로교통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보복운전은 형법상 특수폭행·협박·손괴·상해죄에 해당하여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운전대를 잡으면 평소와 달리 예민하고 과격해지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흔히 본다.

그러나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이고 그러한 운전자 자신이 반대로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지난해 10월 법무부 주최, 광주지방검찰청 주관으로 시작된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이 전국 곳곳으로 퍼지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이와 더불어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계기로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높아지고 상대 운전자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운전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기 고

친환경 자동차 생산도시를 위해



이 천 한
자동차부품연구원 광주전남본부장

광주 자동차산업은 62만대 생산체계를 구축하여 국내 제2의 자동차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역 산업 중 가장 큰 비중(부가가치 39.4%, 고용률 22.2%, 수출 35%)을 차지하고 있는 주력산업이다. 최근에는 지역의 가전 및 광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 산업이 차지하는 지역 경제의 심리적 비중은 더욱 커지고 있다.

광주의 자동차 산업은 다른 주력 산업에 비해 그 동안 투자 및 지원 정책이 상대적으로 미흡해 거의 자생적으로 버티는 측면이 있었다. 다행히 최근 클린디젤 사업 등을 통하여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을 다졌으며, 광주시의 정책적 의지로 자동차 산업벨트 육성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최근 친환경 자동차 시장이 성장하는 반면 국내 완성차업체의 해외 현지생산

이 확대되면서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가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환경 및 연비규제들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유럽연합(EU)은 km당 130g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0년 95%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도 2020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을 97g/km로 추진 중에 있다. 이처럼 자동차 시장 패러다임은 고효율 내연기관차, 전기차 및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분야로 집중되고 있는 게 대세다.

그러나 세계 자동차 업체들은 현지화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기술집약도가 높고 자국의 기술보호가 필요한 친환경차 분야에서만은 자국 생산을 고수하는 추세여서 국내의 친환경차 생산 증대 또한 기대되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부품업체 지원 정책 논의도 필요하다.

다행히 광주 자동차산업은 대내외적인 자동차 시장환경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갖추고 있다. 광주의 주력 생산 차종은 높은 시장성장 대비 국내 경쟁력이 취약한 SUV와 디젤차, 미래 유망시장인 EV, 고부가가치 틈새시장인 특수목적 자동차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수소차 중심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입주하면서 향후 친환경 자동차 선도 도시로의 발전성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광주의 에너지와 더불어 전기 및 수소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를 규제프리존 사업으로 지정했다. 광주시는 수소차와 전기차를 동시에 충전가능한 융합충전소를 설치 운영하는 등 연산 산업육성을 발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반면 광주 자동차 부품산업은 1차 협력업체가 완성차 전체 협력업체(879가사) 대비 2.8%에 불과하며, 비교적 부가가치가 낮고 전통적인 생산가공 분야에 집중되어 있어 글로벌 기술력을 가지는 부품 산업 육성과 집적화의 추진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친환경차 분야의 진입이 절실히 요구되는 부분이다.

‘광주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및 러스터 조성 사업’은 이러한 친환경차 분야로의 빠르고 효율적인 진입을 통해 광주 자동차 산업의 지속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산업경제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핵심 사업이다.

자동차 100만대 사업은 친환경 자동차 관련 전문 인프라 구축과 기술개발 지원 사업이다. 이는 수소 및 전기차의 핵심 구성시스템, 효율향상을 위한 경량화, 지역의 광산업과 연계된 광융합 전장시스템 등을 지원하며, 또한 광주지역에 특화되어 있는 군수용 차량 등 특수목적자동차의 고부가가치 신산업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더불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육성되는 수소자동차 관련 벤처기업의 지속성장을 본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친환경자동차로의 전환, 소비자 편의 증대 및 안전규제 강화에 따른 지능형자동차의 등장, 전기차·수소차 등의 보급으로 새로운 전후방 서비스 산업의 등장 등 지금까지와는 다른 소프트웨어 중심의 새로운 개념의 자동차산업이 급속도로 밀려오고 있다.

이런 산업환경 여건에서 기업들이 스스로 어려움을 돌파하고 신산업으로의 진출을 기대하기에는 현 시장의 전개 속도가 너무 빠르며 진입장벽이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미래 신산업으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이를 수행할 정책적 지원과 더불어 적절한 프로그램이 절실한 상황이다.

자동차 산업이 광주의 전략산업이며 광 및 가전 등 기존 산업들의 신규 진입시장으로써 중요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 100만대 사업은 지역 산업전반의 동반성장과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발전을 구현함과 더불어 국내 자동차 산업의 친환경 자동차 시장선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無 等 鼓

파업과 시위를 좋아하는 국가나 정권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파업과 시위는 체제나 정권 말기에 자주 일어났다. 파업은 사회주의 체제를 탄생시키는 역사적 계기로 작용하거나 사회주의를 해체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했다. 파업과 같은 투쟁은 노조가 발달한 자본주의 국가에서 잦은 것이 사실이지만 체제를 위협하는 강도는 공산주의 국가나 전제국가에서 훨씬 더 세다.

전제국가였던 러시아는 러일전쟁의 패배로 한층 피해까지 파업 노동자들의 힘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어 1차 세계대전 발발, 연이은 패전 등으로 노동자들의 파업·시위는 날로 거세졌으며 급기야 1917년 3월 노동자·병사·농민들이 자신들의 대표기관인 소비에트를 결성한다.

시위대는 전제정치 타도를 외치며 왕궁으로 물러갔고, 당시 왕인 니콜라이 2세는 진압군을 소환한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철도파업으로 군인을 후송할 기차가 움직일 수 없어 방비를 못 하게 된다. 상당수 병사들마저 혁명군에 합류함으로써 결국 전제정치가 막을

내린 뒤 임시정부가 세워졌다.

이후 정치적 혼란 상황에서 레닌이 나타나 혁명정부를 건립했다. 이어 부르주아와 대지주 등의 저항을 잠재우고 1922년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 연방을 수립하게 된다. 폴란드도 노조 활동이 거세지면서 1989년 폴란드자 유노조연합이 사회주의 정권을 무너뜨린다.

사회 전반을 공산당 체제 아래 두고 있는 중국이 급격히 증가하는 파업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3월 중국 하이퉁성에서 연탄 파업이 일어났을 때를 보면 10만 명의 노동자가 시위를 벌였다. 또 2010년 광둥성 혼다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하던 1900명의 노동자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19 일간 파업을 벌여 목적인 바를 이루기도 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중국 내 파업은 무려 2700건이 넘었다. 증가세가 가팔라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제도 어려워지고 있다. G2로 자리 잡으면서 거침없이 직진 중인 중국의 가장 큰 위기는 경제 불황으로 인한 파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채희총 사회2부장 chae@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